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참 고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12.27.(금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	책임자	국 장 이 진 (02-3145-8170)
	금융시장총괄팀	담당자	수석조사역 신상주 (02-3145-8187)

금감원,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(12.27일)

□ 금융감독원은 12.2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환율 급등 및 연말 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,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

* 수석부원장 주재 및 주요 업권 부서장 참석

○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,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(12.24일)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금융권 및 기업의 자금상황은 안정적인 모습으로서

- 금융권 총수신*이나 연말에 만기가 집중된 퇴직연금**에서도 권역간 대규모 자금이동은 없으며, 회사채 발행여건***도 우호적이라고 평가

* [저축은행] 12.24. 102.2 → 12.26. 102.1조원(△0.08), [상호금융] 12.24. 647.7 → 12.26. 648.3조원(+0.57)

** 12.21~31일 만기도래 금융권 퇴직연금(DB)은 67.3조원으로 전년대비 9.1조원 감소하여 만기부담이 완화된 가운데, 권역간 퇴직연금 잔액에 큰 변동이 없고 저축은행은 0.1조원 증가

*** 회사채(AA-) 스프레드 (bp) : '2211말(레고랜드사태) 177.5 → '23말 74.4 → '24.12.4일 59.6 → '12.26일 68.8

- 다만,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, 금융권 및 기업 등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음

① 외화대출·수입신용장 만기연장, 무역어음 환가료 우대 등 은행권 수출기업 지원방안(12.24일)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독려

- 금융회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,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등 정부의 외환수급 개선방안(12.20일)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,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금융권 외환감독 개선사항 지속 발굴

② 은행권 위험가중치 합리화, ST 완충자본 연기, 보험권 新건전성 제도 경과조치 등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역량 강화 조치사항(12.19일)이 실물경제 지원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

③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, 폐업자 지원, 상생 금융 등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 조치사항들은 신속하게 지원